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은희¹ · 이은주²

¹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²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Effects of a Death Education Program on Life Satisfaction and Attitude toward Death in College Students

Kim, Eun Hee¹ · Lee, Eunjoo²

¹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al study was to examine the values of a death education program developed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and attitude toward death in college students. **Methods:** The death education program was developed and then used with 22 college students for 5 weeks, once a week for 150 min.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students responded a questionnaire developed to measure life satisfaction and attitude toward death. t-test, χ^2 -test, and paired t-test with the SPSS program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e death education program significantly improved life satisfaction but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toward dea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but not in attitude toward death. **Conclusion:**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apparent that the death education program has an affirm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and some impact on attitude toward death. We suggest, therefore, that the death education program should be used with all human beings to help them recognize the values of themselves and their current lives and improve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Key words: Death, Education, Attitude, Life, Student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라는 몫을 똑같이 부여받게 되며 죽음이 삶과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본능적으로 기피하고자 한다(Jung, B. R., 2006; Kim, Choi, Lee, & Sin, 2005). 즉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져 인간에게 근원적 고통을 제공하지만, 그 이유가 죽음 그 자체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한다(Jung, B. R., 2006). 그러므로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면 죽음에 대한 준비는 필연적이고(Kim et al., 2005), 죽음을 이해하고 준비할 때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죽음준비교육이란 죽음, 죽음과정, 사별과 관련된 모든 측면의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철학, 사회학, 종교학, 심리학, 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여러 학문분야의 협력이 요구되며, 죽음학이라는 학문으로 정립되어 있다(Warren, 1989). 그리고 죽음학에서는 죽음의 의미와 대응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하므로 모든 연령층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

주요어 : 죽음, 교육, 태도, 삶, 학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Eunjoo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01 Dongin-dong, Jung-gu, Daegu 700-422, Korea
Tel: 82-53-420-4934 Fax: 82-53-421-2758 E-mail: jewelee@knu.ac.kr

투고일 : 2008년 8월 6일 심사회의일 : 2008년 8월 16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월 12일

고 한다(Higgins, 1999; Jung, B. R., 2006; Kim et al., 2005).

이러한 죽음학은 20세기 이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생명, 그리고 죽음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 더욱 발달하였다(Jang, 2004). 그 후 노령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화와 죽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게 되어(Jang, 2004), 죽음준비교육의 연평균 증가율은 17%로 2000년 현재 3,200여 개 이상의 죽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Educational Research Institution of Hospice, 2006).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초, 중등 교육 중 보건교육이나 사회과목 혹은 예술(arts)과목에서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Jung, J. G., 2006)있으며, 대상자들도 건강한 사람에서 호스피스 대상자와 그 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Higgins, 1999; Smith-Cumberland, 2006).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문제로 자살이 대두되면서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Jang, 2004; Lee & Kim, 2007)하고 새롭게 생명의 소중함과 생의 의미를 재고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은 제시되었으나(Jung, B. R., 2006; Kim et al., 2005; Lee & Kim, 2007),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효과성 검증은 청년들뿐 아니라 그 외 대상자에게도 아직 활발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Jo, Lee, & Lee, 2007; Kim et al., 2005). 또한 죽음준비교육이 실시되더라도 죽음과 좀 더 관련이 깊은 노인이나, 호스피스 대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죽음준비교육이 종교단체와 대학 등에서 일방적으로 지식만을 전달하는 식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Kim et al., 2005).

이러한 죽음준비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를 보면 일반대학생이 죽음준비교육 후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와 삶의 태도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고(Jo et al., 2007), 일반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의 호스피스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불안이 감소하였다는 것(Mogi et al., 2003), 그리고 아동기에 이루어진 죽음준비교육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영적, 도덕적, 문화적, 정신적 및 신체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 등이 있다(Higgins, 1999). 그리고 Aday (1998)의 연구에서는 죽음준비교육이 노인의 우울, 죽음 불안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으며, Kawagoe와 Kawagoe (2000)는 호스피스 환자와 그 가족이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게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발달단계상 청년기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은 신체·생리적인 면뿐 아니라 지적, 정서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와 발달이 나타나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한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

는 시기이다(Kang, Kim, Song, & Sim, 2007). 이러한 시기에 자신의 내적 일관성과 사회적 요구를 잘 통합하지 못하면 내외적 혼란의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혼돈으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갈등상황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고(Jo & Lee, 2008), 이로 인해 무력감과 우울, 삶의 만족감이 저하되어 자살충동을 느끼기도 한다(Donald, Dower, Correa-Velez, & Jones, 2006; Jo & Lee, 2008; Lee & Kim, 2007).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죽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Jo & Lee, 2008). 하지만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하위변인이라는 선행연구결과(Chung, 1992)에 따르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Jo & Lee, 2008).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죽음준비교육의 제공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Higgins, 1999; Jo, Lee, & Lee, 2007) 개인 삶에 대한 태도 변화와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Chung, 1992; Jo et al., 2007), 이로 인해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뿐만 아니라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Jo, 2004; Mogi et al., 2003)할 수 있게 할 것이라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위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대학생에게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둘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란 죽음의 과정과 죽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죽음이 삶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프로

그램이다(Warren, 1989).

본 연구에서는 일개 시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1회 150분씩 총 5주 동안, 죽음을 삶과 연결해서 생각하기, 죽음에 대한 느낌과 현재 자신이 느끼는 가장 큰 위기의식을 죽음과 연관해서 생각하기, 죽음에 대한 간접체험, 죽음에 대한 준비와 현재 삶의 의미 찾기, 그리고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실험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경북지역에 위치한 일개 대학에 등록한 학생으로 편의추출로 선정되었다. 먼저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죽음준비교육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서면동의서에도 이를 명시하고 서명을 받았으며,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었다. 중재 전에는 실험군이 24명, 대조군이 22명이었으나 중재기간 동안 실험군에서 프로그램 참여 부족과 설문지 작성 누락으로 2명이 탈락하여 최종 참여자는 실험군 22명, 대조군 22명으로 총 44명이었다. 대상자 수는 유의수준 $\alpha=.05$, 효과크기 .70, 검정력 .60을 기준으로 독립 t-검중에 필요한 표본수인 21명(Cohen, 1988)보다 많아서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문헌자료를 토대로 호스피스 전문가인 간호대학 교수의 검증을 거쳐 연구 대상자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개발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문헌자료를 보면 Kim 등(2005)은 교육프로그램을 매일 6시간 5일간 실시하였으며, Jo (2004)는 1회 100분 총 6일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매주 1회씩 150분간, 총 5회로 죽음에 대한 도입, 탐색, 이해, 수용, 그리고 마무리로 구

성하여 실시하였다.

도입단계의 주제는 '죽음 생각하기'이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실험군을 두 그룹(A와 B)으로 나누어 원탁으로 앉게 한 후, 대상자들의 간단한 소개 및 별칭짓기, 그리고 죽음준비교육에 참여한 동기와 기대를 말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옆 사람과 손을 잡은 상태에서 눈을 감게 한 후, 본 연구자가 묘비 글(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 있는 한 영국 성공회 주교의 무덤 앞에 적혀 있는 글)을 낭독하였다. 이때 죽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색과 단어, 삶(출생)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색과 단어를 생각하도록 하였다. 5분경과 후 A그룹은 죽음과 관련하여 연상되는 색상과 단어를, B그룹은 삶(출생)과 관련하여 연상되는 색상과 단어를 흰색 전지에 작성하게 한 후 여백은 원하는 색상과 그림으로 장식하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별칭에 맞는 명패를 만들었다.

탐색단계에서의 주제는 '죽음과정과 죽음에 대한 이해'이다. 지난주에 나눠진 그룹 그대로 앉게 한 후 본 연구자가 죽음, 죽음과정, 그리고 삶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죽음과 관련되어 문제시 되고 있는 것 중 낙태, AIDS, 자살, 약물남용 실태를 먼저 영상물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토론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것인지를 토론하였다.

이해단계에서는 '죽음에 대한 간접체험'을 위해 DVD를 시청(MBC다큐, 아내 김경자)하게 한 후 각 개인이 김경자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1개월 남았다면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글로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것 3가지'와 '가장 후회스러운 것'을 글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용단계의 주제는 '죽음준비와 현재 삶의 의미 찾기'이다. 먼저 자신의 장례식에 초대할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고 초대장을 만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보낼 유언장이나 작별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난주 가장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고무풍선에 모두 적게 한 후 "()한 고통(기억)은 모두 날려 버린다."로 큰 소리로 말을 하고(혹은, 마음속으로 말을 한다) 풍선을 터트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를 글로 작성하게 한 후 말로 표현하면, 모두가 "()한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를 함께 말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칠 무렵 다음 주 유산 만들기에 필요한 물품을 갖고 오도록 하였다.

마무리단계 주제는 '삶의 목표 설정과 나의 가치 정립하기'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여 글로 작성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유산을 직접 만든 후 그 의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함께 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Table 1).

Table 1. Overview of the Death Education Program

Session and topics	Level	Contents and learning activities	Methods
1st session thinking about death	Introduction (150 min)	1. Listening the poet 2. Introducing self 3. Listing of words and colors related to death 4. Creating nickname and name card	Listening the background music and discussion
2nd session understanding meaning of death and dying process	Searching (150 min)	1. Explain the process of death and meaning of life 2. Social issues related to death and identifying feelings related to death including suicide, substance abuse, AIDS, and abortion	Animation, Lecture, Discussion
3rd session indirect experience of death	Understanding (150 min)	1. Watching drama related to dying process titled My wife Kim, Kyunga using DVD 2. Share feelings about dying process with friends 3. If you have only a month to live, how would you spend your time until death? 4. List the three most precious things and 3 most regrettable things in your life	Animation, Discussion
4th session preparing for death and finding the meaning of death	Acceptance (150 min)	1. List names of people who you want to invite to your funeral and make funeral invitation cards 2. Develop a written will and last goodbye letter 3. Find meaning in current life - Present the 3 most important things in your life - Release the most miserable memory and fly it away with a balloon - Write down your value and speak it out loud to others: Because I am (), I am valuable!	Lecture, Discussion, Presentation
5th session setting goals and values for life	Wrap-up (200 min)	1. Setting goals for life and expressing them 2. Make your own will 3. Present your feeling and thought on death after the education program	Presentation

4. 연구 도구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척도는 Kim과 Lee (1996)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생에게 부적합한 문항을 제거하고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총 43문항이다. 수정된 도구는 간호학 교수 3인의 자문을 받아 내용타당도를 확립하였다. 본 도구는 가정생활에 관련된 11문항, 학교생활에 대한 7문항, 대인관계 만족에 대한 8문항, 주관적 삶의 만족에 대한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측정방법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 범위는 최소 43점에서 최고 215점이다.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8$ 로 나타났다.

2)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항은 Collett와 Lester (1969)가 만든 Fear of Death Scale (FODS)를 토대로 Go, Kim과 Kim (1999)이 개발한 도구에서 대학생에게 부적합한 문항을 제거하고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총 18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6문항, 죽음에

대한 회피 7문항, 위기관리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간호학 교수 3인의 자문을 받아 내용타당도를 확립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 범위는 최하 18점에서 최고 90점으로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19$ 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새로 개발된 도구는 신뢰도가 Cronbach $\alpha=.60$ 까지도 가능하다는 연구결과(Nunnally, 1978)를 바탕으로 연구 도구로 채택하였다.

5.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 수집을 위해 먼저 일개 대학을 방문하여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그 뒤 일개 전 공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강의실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기 위해 0과 1이 적힌 표를 바스켓에 넣고 1개를 선택하게 한 뒤, 1은 대조군, 0은 실험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그 뒤 실험군에 포함된 학생들에게만 죽음준비교육을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30분간 학과 실습실에서 5회 실시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에서 사전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삶의 만족도,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고 사후조사는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대조군은 죽음준비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실험군과 동일한 시기에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삶의 만족도,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태도의 동질성은 t-test와 χ^2 -test로 검증하였다.

둘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죽음에 대한 태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재 전·후 차이에 대해서는 paired t-test를 사용하였고, 중재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본 연구 대상자는 실험군 24명, 대조군 22명으로 총 46명이다. 성별 분포는 여자가 38명(82.6%)을 차지하였으며, 종교는 갖고 있는 대상자가 26명(56.5%)으로 두 집단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정 경제수준은 '중'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34명(73.9%)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한 달 용돈은 '10만 원 미

만' 14명(30.4%),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 14명(30.4%), '20만 원 이상' 18명(39.1%)으로 균등하게 분포하였다. 현재의 건강상태에서는 '보통'으로 답변한 대상이 31명(67.4%)이었고, 부모님 생존여부에서 '부모님 생존'이 39명(84.8%)을 차지했다.

이상과 같이 성별, 종교, 가정 경제수준, 한 달 용돈, 건강상태, 부모님 생존 여부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χ^2 -test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은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2. 삶의 만족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의 동질성 검증

본 연구 대상자의 중재 전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t-test로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재 전 전체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실험군 3.13점, 대조군 3.04점으로, 두 집단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84$, $p=.404$). 전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실험군 2.98점, 대조군 2.08점으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81$, $p=.421$). 그러므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3.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1) 삶의 만족에 대한 효과검증

중재 후 대상자의 삶의 만족을 비교해본 결과 실험군의 삶의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Demographics	Categories	Exp. (n=24) n (%)	Con. (n=22) n (%)	Total (n=46) n (%)	χ^2	p
Gender	Male	6 (25)	2 (9.1)	8 (17.4)	2.02	.155
	Female	18 (75)	20 (90.9)	38 (82.6)		
Religion	Yes	15 (62.5)	11 (50.0)	26 (56.5)	0.73	.393
	No	9 (37.5)	11 (50.0)	20 (43.5)		
Economic level of household	High	4 (16.7)	3 (13.6)	7 (15.2)	1.12	.773
	Medium	17 (70.8)	17 (77.3)	34 (73.9)		
	Low	3 (12.5)	2 (9.1)	5 (10.9)		
Monthly pocket money	Less than 100,000 won	6 (25.0)	8 (36.4)	14 (30.4)	0.71	.702
	100,000-200,000 won	8 (33.3)	6 (27.3)	14 (30.4)		
	More than 200,000 won	10 (41.7)	8 (36.4)	18 (39.1)		
Health condition	Not good	5 (20.9)	2 (9.1)	7 (15.2)	1.73	.420
	Moderate	16 (66.7)	15 (68.2)	31 (67.4)		
	Excellent	3 (12.5)	5 (22.7)	8 (17.4)		
Parents alive	Both parents alive	19 (79.2)	20 (90.9)	39 (84.8)	1.61	.447
	One-parent alive	5 (20.8)	2 (9.1)	7 (15.2)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Table 3. Homogeneity Test for Life Satisfaction and Attitude toward Death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Exp. (n=24)	Con. (n=22)	t	p
	M±SD	M±SD		
Life satisfaction	3.13±0.35	3.04±0.42	0.84	.404
Attitude toward death	2.98±0.33	2.08±0.46	0.81	.421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Table 4.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Life Satisfaction and Attitude toward Death

Variables	Exp.	Con.	t	p
	M±SD	M±SD		
Life satisfaction	3.47±0.33	3.20±0.29	2.90	.005
Attitude toward death	3.21±0.33	3.11±0.28	1.17	.248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만족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2.90$, $p=.005$) (Table 4). 실험군의 삶의 만족은 중재 후($M=3.47$, $SD=.33$)에 유의하게 상승하여 본 연구에서 제공된 중재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t=4.77$, $p=.001$), 대조군은 시간이 경과하여도 삶의 만족이 향상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1.67$, $p=.110$) (Table 5). 따라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삶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2) 죽음에 대한 태도의 효과검증

중재 후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본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t=1.17$, $p=.248$) (Table 4). 그리고 중재 후 실험군의 죽음에 대한 태도도 유의하게 상승하지 않았으며($t=2.07$, $p=.051$), 대조군도 시간이 경과하여도 죽음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았다($t=.28$, $p=.785$) (Table 5). 따라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 의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근원적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여러 철학자와 연구자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하였으나 죽음은 여전히 인간의 근원적 고통으로 남아 있다(Jung, B. R., 2006).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 긍정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

Table 5. Life Satisfaction and Attitude toward Death before and after Death Education by Groups

Variables		Pre	Post	t	p
		M±SD	M±SD		
Life satisfaction	Exp.	3.13±0.35	3.47±0.33	4.77	.001
	Con.	3.04±0.42	3.20±0.29		
Attitude toward death	Exp.	2.98±0.33	3.21±0.33	2.07	.051
	Con.	3.08±0.46	3.11±0.28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를 형성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삶의 만족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지를 조사해본 결과 죽음준비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t=2.90$, $p=.005$). 또한 실험군의 삶의 만족도는 중재 전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4.77$, $p=.001$).

Lee (2004)의 연구는 대학생들에게 죽음준비교육을 제공한 결과 대학생들의 삶의 가치와 자아 가치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인생관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보고하였다. Kim 등(2005)도 대학생 시기에 죽음준비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과 자아의 가치,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재고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Higgins (1999)는 초등학생들에게 죽음준비교육을 제공한 결과 초등학생의 영적, 도덕적, 문화적, 정신적 및 신체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으므로 모두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죽음준비교육은 모든 연령층에 필요하고 단순히 죽음 자체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현재 삶의 의미와 소중함을 인식하고 온전한 인간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교육임을 알 수 있다(Jung, J. G., 2006). 특히 대학생들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함에 따라 다양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에 있다(Jo & Lee, 2008). 이러한 시기에 죽음준비 교육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은 우리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학생의 부적응적인 심리 상태나 행동에 관한 연구만 주로 수행되어 왔고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힘을 찾아 강화시키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부족한 실정이었다(Park & Kwon, 2006). 따라서 대학생의 긍정적인 힘을 찾아 강화시

킬 수 있다면 신체·심리적 성장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대학생과 같이 삶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유연한 시기에 죽음 준비교육과 같은 교육을 제공받도록 하는 것은 대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두 군 간의 중재 전·후 평균 비교 결과에서는 실험군은 사전 2.98에서 사후 3.21로 0.23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3.08에서 3.11로 0.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에 대한 강의를 16주간 가상강좌를 이용하여 제공한 Jo 등(2007)의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가상강좌 후에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Jo 등(2007)이 제공한 프로그램의 기간이 16주로 본 연구에서 시행한 5주보다 시간적으로 길었기 때문에 차이가 더 확실하게 나타났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 외 Kim 등(2005)도 죽음에 대한 교육이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보고하였으며, An (2001)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죽음 준비교육을 제공한 결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비록 죽음에 대한 태도는 아니지만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 교육을 실시한 Jo (2004)의 연구는 죽음준비교육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켰다고 하였다.

그러나 Lally (1983)의 연구에서는 죽음 관련 영화를 통한 죽음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죽음불안 정도를 오히려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Coleman (1983)은 죽음준비교육이 응급실 의료기술자의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죽음 준비교육의 효과는 대상자와 기간, 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과로 나타나므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여야 하는가는 연령별,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태도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간의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죽음준비교육에 가장 효과적인지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생 시기는 인생의 전환시점으로 그 어떤 시기보다 자아정체감 확립과 올바른 삶의 목표 설정이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그들이 극복해야 하는 발달위기는 더욱 성숙한 청년기를 확립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좌절과 혼란으로 인해 발달과제를 확립하지 못한 채 정체감 혼미에 빠지며 불안을 떨치기 위해 약

물이나 알코올 남용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정체감 혼미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적 비행이나 병리적 성격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기에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서라도 절실하다고 본다.

삶의 만족도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를 보면 Jo와 Lee (2008)의 연구에서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를 나타냈으며, Chung (1992)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살에 대해 부정적이며 긍정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를 가진다고 하였다. Kao와 Lusk (1997)도 죽음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므로 삶에 대한 만족감은 죽음에 대한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죽음준비교육은 현재 삶의 가치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올바른 죽음관의 확립과 삶의 위기와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죽음은 누구에게 먼저 올지, 또 언제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청소년의 자살문제 등을 고려해볼 때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죽음에 대하여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Oh, 2007).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대학생들에게 죽음준비교육을 5주 밖에 지속하지 못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교육기간과 교육회수가 죽음준비교육에 가장 효과적인지를 파악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개 도시에 속한 대학생만을 편의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할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연구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 실험설계이다.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은, 도입단계에서 죽음 생각하기, 탐색단계는 죽음과정과 죽음에 대한 이해, 이해단계에서는 죽음 간접체험, 수용단계에서 죽음준비와 삶의 의미 찾기, 마무리단계는 삶의 목표설정과 나의 가치 정립으로 총 5단계로 매주 1회 150분간으로 총 5주 실시하였다. 사후조사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대상자는 경북지역에 위치한 일개대학 학생으로 죽음준비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소개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로 실험군 22명, 대조군 22명이다.

연구 도구로서 삶의 만족도는 Kim과 Lee (1996)의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총 43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죽음에 대한 태도는 Collett와 Lester (1969)가 만든 Fear of Death Scale (FODS)를 토대로 Go 등(1999)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총 18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PC를 이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검증을 위해서는 χ^2 test와 t-test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중재 전·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paired t-test와 두 집단 간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t-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중재 후 실험군의 삶의 만족도는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t=2.90$, $p=.005$).

둘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중재 전·후 실험군의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4.77$, $p=.001$).

셋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17$, $p=.248$).

넷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중재 전·후 실험군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2.07$, $p=.051$).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중재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한 대학생들에게 적용되어 현재 삶의 가치와 자아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현재를 좀 더 충실히 살아가도록 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재법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특성과 발달위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지속성과 추후변화를 파악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청년기 문제들과 관련하여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day, R. (1998). Elderly reactions to a death education program in a nursing home setting. *Gerontology & Geriatric Education*, 15, 3-9.
- An, C. O. (2001). *Study on the necessity of death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 Ggi University, Seoul.
- Chung, S. K. (1992). *A relational study on attitudes toward death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values of juveni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leman, W. T. (1983). *The effect of an instructional module on death and dying on the death anx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raine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Indianapolis, IN, USA.
- Collett, L., & Lester, D. (1969). Fear of death and the fear of dying. *Journal of Psychology*, 72, 179-181.
- Donald, M., Dower, J., Correa-Velez, I., & Jones, M. (2006).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medically serious suicide attempts: A comparison of hospital-based with population-based samples of young adults.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0, 87-96.
-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ion of Hospice. (2006). *Hospice and palliative care*. Seoul: Gun Ja Publishing Company.
- Go, S. D., Kim, E. J., & Kim, Y. K. (1999). Study about analyzing elements of preparatory education of death affecting uneasiness of death to the aged.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6, 81-92.
- Higgins, S. (1999). Death education in primary school.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spirituality*, 4, 77-99.
- Jang, O. H. (2004). *Study about death of the aged: Focusing on the attitude of dea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 Gang University, Seoul.
- Jo, H. J. (2004). *Effect of the death education program on the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of nursing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 Sang University, Jinju.
- Jo, K. H., Lee, H. J., & Lee, Y. J. (2007).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yber lectures about deat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442-452.
- Jo, K. H., & Lee, H. J. (2008).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depression, level of satisfaction and death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 229-237.
- Jung, B. R. (2006).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preparatory education of death. *Kyungpook Journal of Nursing Science*, 10, 49-60.
- Jung, J. G. (2006). A study of death education-Focused on a world of Shih Shih Wu Ai in Hua-yen philosophy. *Jou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13, 205-230.
- Kang, K. A., Kim, S. J., Song, M. K., & Sim, S. (2007).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n instrument for adolescents meaning in lif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625-634.
- Kao, S. F., & Lusk, B. (1997). Attitudes of Asian and American graduate nursing students towards death and dy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4, 438-443.

- Kawagoe, H., & Kawagoe, K. (2000). Death education in home hospice care in Japan. *Journal of Palliative Care*, 16, 37-45.
- Kim, S. N., Choi, S. O., Lee, J. J., & Sin, K. I. (2005). Effects of death education program on attitude to death and meaning in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2, 141-153.
- Kim, S. Y., & Lee, E. G. (1996).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satisfaction of their life. *Haksang Sangwhal Yeongu*, 32, 74-93.
- Lally, M. T. (1983). *Death anxiety and fear of death attitudes: A death education program for student nur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IL, USA.
- Lee, H. J., & Kim, M. H. (2007). A path model for self-identity and hopelessness to suicidal ideation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 243-264.
- Lee, J. Y. (2004). Juveniles' awareness about death and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9, 39-56.
- Mogi, N., Masuda, Y., Hattori, A., Naito, M., Iguchi, A., & Uemura, K. (2003).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self-determination in medical treatment in university students. *Geriatrics and Gerontology International*, 3, 200-207.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Oh, K. H. (2007).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 on the attitude toward death in the elderly: Focused on the elderly in Mapo-Gu,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Park, H. S., & Kwon, B. S. (2006).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of the undergraduate students and related elem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 48-56.
- Smith-Cumberland, T. (2006). The evaluation of two death education programs for EMTs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Death Studies*, 30, 637-647.
- Warren, W. G. (1989). *Death education and research: Critical perspectives*. New York, NY: The Haworth Press.